

바닥 어디까지?... 美 인플레이 쇼크에 韓 증시 ‘블랙 먼데이’

美 물가충격에 패닉 셀링 장세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극대화 ‘자이언트스텝’ 가능성도 고개 전문가 “긴 호흡 리스크 관리”

코스피가 3% 이상 급락하면서 2500대 초반까지 밀렸다. 코스닥까지 4% 이상 동반 하락해 한국 증시가 ‘블랙 먼데이’를 재현했다.

13일 증시 급락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물가 쇼크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기조를 강화할 것이란 우려감이 반영됐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8.6% 올랐다. 이는 1981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불거진 가운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공포감이 국내 증시를 뒤덮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금요일 밤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 충격으로 패닉 셀링(공황 매도) 장세가 이어졌다”라며 “물가 충격에 소비심리 쇼크가 가세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물가 상승 속 경기침체) 공포가 극대화해 위험자산, 안전자산 구분 없이 자산시장 전반에 급락세가 전개 중이다”라고



코스피가 13일 미국의 물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91.36포인트(3.52%) 하락한 2504.51로 마감했다. 코스닥은 전거래일 대비 41.09포인트(4.725%) 떨어진 828.77로, 원·달러 환율은 15.19원 오른 1,284원에 거래를 마쳤다. 13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증가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91.36포인트(3.52%) 급락한 2504.51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에서 삼성전자(-2.66%), 현대차(-4.35%), 네이버(-5.93%) 등을 비롯한 모든 종목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장 대비 41.09포인트(4.72%) 내린 828.77에 장을 마쳤다. 이날 증시에선 삼성전자를 비롯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미 5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에 의문이 생겼고, 위험자산인 증시 회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노동부는 5월 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6% 오른 것은 지난 1981년 12월 이후 41년만에 물가가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른 것이다. 당초 시장 예상치로 제기된 8.3%를 웃돈 수치로 지난 3월에 기록한 8.5% 상승률을 뛰어 넘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시장 예상치인 8.3%에 부합했다면

인플레이션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았지만 이를 소폭 상회하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의 불씨가 다시 한 번 불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도 “소수점 차이로 상회한 점을 두고 호재 다 악재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만, 예상치보다 소폭 웃돈 상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요소가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했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오는 14~15일 열린 연준의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 또는 빅스텝의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더해졌다.

이경민 연구원은 “물가 충격에 이번 주 6월 FOMC에서 빅스텝(한 번에 50bp 인상)이 아닌 자이언트스텝 전망과 7월 자이언트스텝, 9월 빅스텝 가능성에 힘이 실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식시장 대처 방안으로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긴 호흡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렬 센터장은 “당장 주가 하락에 따른 대응에 나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와 함께 우량 통화를 보유해 향후 있을 수 있는 투자 기회를 엿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고태봉 센터장은 “주식시장의 조정의 기간과 폭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영역이지만 이미 가격 조정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또한 공급망 이슈,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면 성장주를 중심으로 반등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주가가 하락한 보유 종목을 매도하면서 대응하기 보다는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파랗게 질린 암호화폐... 문제는 추가 하락 가능성

비트코인 2만6000달러선 붕괴 美 소비자물가 41년 만에 최고치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조짐에 업계, 암호화폐 추가 하락 점쳐

암호화폐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문제는 추가 하락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전망되고 있어 시장 하락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13일 글로벌 코인시황 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2만 570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다. 비트코인이 2만6000달러선 밑으로 거래된 것은 지난 2020년 12월 25일 이후 처음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4월 4만달러 붕괴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계속되는 긴축 정책에 코인시장이 급락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빙셀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이 3300만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 /뉴시스

후 5월 2만6000달러까지 하락했다. 6월에는 급등 후 급락을 보여주면서 롤러코스터장이 이어졌다. 이더리움 역시 1300달러대까지 무너지면서 연중 최저점을 경신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루나사태 등 악

재가 겹치면서 회복이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은 미국의 CPI 최고치와 미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5월 CPI가 8.6%를 기록하면서 지난 1981년 이후 4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시장예상치 8.3%보다 상회하자 긴축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또한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14~15일(현지시간) 예정된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전망하면서 낙폭은 더 커졌다.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빅스텝(0.5%포인트 인상)’보다 더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와 바클레이즈, 제프리스 등도 이번 FOMC 회의에서 자이언트스텝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스태그플레이션 장기화 전망도 나오고 있어 암호화폐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 오(Bobby Ong) 코인게코 창업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전 고점 대비 80% 이상 추락했다”며 “과거 사례와 비교해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전문 업체 코인테스크도 추가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

코인테스크는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1차 지지선이 2만5000달러, 2차 지지선이 2만2000달러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2만2000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경우 비트코인이 1만7000달러 사이로 급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복현 금감원장 “가상자산시장 자율규제 확립 필요”

가상자산시장 관련 당정간담회 “새 유형의 리스크 발생 가능성”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13일 “가상자산 시장 자율규제 확립이 보다 강조돼야 한다”며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에서도 빅블러 현상이 두드러지고 NFT(대체불가능토큰), 디파이 등 신종 가상자산도 급성장하면서 금융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열린 제2차 당정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시장에도 새로운 유형의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가상자산 거래는 대규모·비대면 거래로 인해 정보 비대칭, 불공정 거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시장 자율규제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테라·루나 사태에 대해 “그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은 이번 사태로 인한 리스크가 금융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번 테라·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시장과 그 규제방향에 대해 남긴 교훈들도 잘 살피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의 확산이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할 방침”이라며 “나아가 가상자산 시장이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기반으로 더욱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병영 기자 koogija_tea@